미리보는
새로운 인연(因緣)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사화전

禪書畵

근현대 고승 선필·선화 '한자리'



①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메머드급 선서화전이 열린다.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에서 '새로운 인연(因緣)'을 주제로 열리는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은 근현대 고승들의 선필(禪筆), 선화(禪畵)부터 한국화 명인들의 작품까지 300여 점이 출품·전시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시와 교계 단체 지원을 위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희사했다.

선서화전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경봉·월하·청담·석주·원담 스님 등 선지식의 선필 160여 점과 석정·송담·중광·정현·수안 스님 등의 선화 140여 점이 전시된다.

교계 단체 지원과 불교 중흥을 위해 열리는 선서화전의 주요 작품들을 독자들에게 먼저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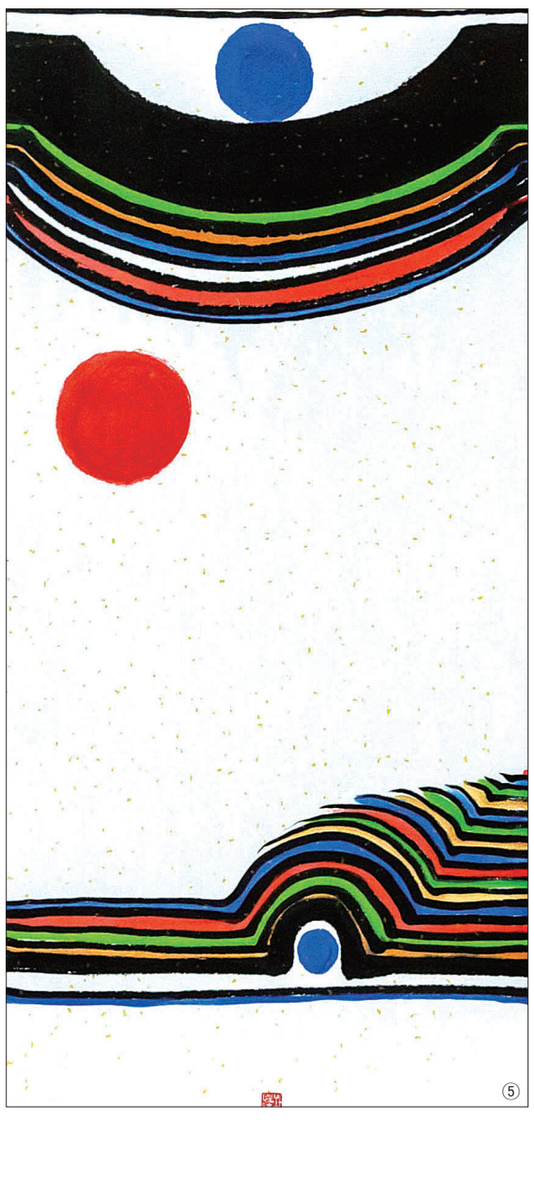
〈편집자 주〉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진제 스님, 붓다로 살자, 127×38.5cm
② 청담 스님, 불(佛), 58×115cm
③ 경봉 스님, 무진장(無盡藏), 135×70cm
④ 경봉 스님, 반야심경 10폭 병풍
⑤ 성효 스님, 선화, 33×70cm
⑥ 정현 스님, 판치생모, 32×32cm
⑦ 수안 스님, 선화, 143×79cm
⑧ 중광 스님, 선화, 54×78.5cm